

21세기 농어촌 정비와 우리의 자세

최 수 명

한국농공학회 농어촌정비위원장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Y2k”로 별칭되는 컴퓨터 연도 인식 오류의 위험성이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평범한 일상에 얽매어 있는 우리에게도 과거의 10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매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기원 후 첫 천년이 농촌·농업사회이었다면 두번째 천년은 도시·산업화가 진행된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추세로 판단하건데 앞으로의 천년은 도농 복합·정보사회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산업사회의 기본틀이 인간의 삶의 터로서 도시가 갖는 조밀성(Compactness)과 일터로서 공장(또는 제조업)이 갖는 집약성(Intensiveness)의 적절한 조화에 있었기에 양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위에 있었던 농촌·농업사회는 변화가 강요된 채 존립과 구성의 기본논리마저 도전받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면 정보 사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보사회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생산(농업+제조업)능력이 수요량을 초

과하게 되어 사회적 가치의 중심이 보다 고급화된 정보와 지식의 생성·분배로 이동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래 인간을 구속하여 왔던 실체적 공간(또는 지리적, 물리적 공간)에서 해방되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사이버 공간으로 활동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다원성·개별성이 시대적 풍조로 자리하게 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유동화 함에 따라 인간정주의 기본틀도 급속한 구조적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살터, 일터, 쉼터의 선택을 제한하였던 요소들이 대부분 제거됨에 따라 우위열위의 판단기준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별 구성 요소들은 자신들의 잠재적 가치를 선호하는 사회 계층을 지향하여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세기의 도시·산업사회화 과정이 농업 농촌의 일방적 퇴행을 강요하였던 것에 비해 앞으로의 지식정보 사회화 과정은 농촌의 재생 또는 새로운

발전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미진할 경우 무차별적인 농촌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정보사회가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농촌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진전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농촌재구성(Rural re-composition)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촌의 틀 바꾸기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서구사회에서도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물리적 제반 구조에 아직도 전통적 요소가 강하게 잔류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여 새로운 틀 형성이 필요함은 더욱 재론할 필요가 없다.

농촌을 재구성 또는 재구축하는 과정은 농촌주민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다원적인 시각이 어우러져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삶의 역사는 전통적인 것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것의 도입·조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분석과 정교한 계획·설계, 그리고 유연한 실행만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농촌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정보사회화가 추진되어도 인간의 활동을 담는 기본골격 또는 하부구조의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며,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동은 하부구조의 구조적 변동을 수반케

되고 이와 함께 새로운 하부구조 속에서 새로운 인간활동을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작동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재구성된 농촌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농촌재구성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고 또는 등장하게 될 21세기에 있어 그간의 축적된 하드웨어 건설기술과 컴퓨터 기술에 바탕을 둔 시스템 계획·처리 기술로 무장된 농공인들의 역할과 사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적용은 전체와 부분, 개략과 세밀의 구분이 모호한 체서로 상반되어온 양 측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래서 겸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조건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농촌공간은 자연환경 또는 개조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제반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나라·지역·지방 그리고 아주 작게는 마을마다 그 구성상 특성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은 조작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사회가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앞에서 언급하였던 다양성·다원성·개별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농공인들의 손에 의해 구체적 과실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의 전개에 상응하는 생물산업기반·시스템의 구축, 소규모·분산적 전원생활을 지원하는 농촌정주시설의 계획·설계·시공기술 개발, 첨단기술과 보전의 철학·윤리적 논리가 결합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

이 갖는 통합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또는 자연친화적인 밑그림 위에서 산업·생활·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진정한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인간중심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임을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지식은 연구와 실행, 그리고 환류검토가 끊임없이 반복될 때 축적되는 것이고, 또 알맹이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근본적으로 좌우되는 것이지만, 농어촌정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부분의 취약성을 하루바삐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다양한 사회를 형성키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간자료들을 체계적 질서 하에 취득·관리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가치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새로운 가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계승시켜 주는 것은 앞서간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준비하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자들의 몫이다. 새로운 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신호일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없이는 또 다른 위기 다름 아닐 수 있기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미래를 짚고 대비하는 해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